

2011년 7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성일과장(2110-5221), 최태준사무관(2110-4713)

## 농업진흥지역으로 막힌 공장증설 숨통이 트인다

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11.7.15 시행)—

- 지경부(장관 최중경)는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 하도록 기특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(제10조제2항)하여 시행('11.7.15) 한다고 밝혔다

※ 농업진흥지역 :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동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이용행위를 제한

- 이러한 특별 조치는 농업진흥지역과 도로·철도·하천·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(2008.12.31 이전 설치)의 경우,
  -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틔여 주려는 취지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('09.7 VIP보고)와 협의하여 추진한 결과임
  - 또한,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,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의 축소 방지의 필요성도 있어 공장 증설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 기특법상의 특례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\*함으로써 기업애로해소와 농업진흥지역 보존 간의 균형을 맞추었음

\* 기존 특례 조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동 지역안에 설치한 공장의 증설은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3천제곱미터 이내로,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만2천제곱미터 이내로 허용

- 이에 따라 공정개선 등을 위한 공장증설이 농업진흥지역 및 도로·철도 등으로 장애를 받았던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개선될 전망(첨부 1)
- 앞으로도 지경부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
  - 특히, 최근 국가경쟁력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\*되고 있는바,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임

\* 국가경쟁력순위(IMD, 2011)는 역대 최고순위 기록(22위)이었으나, 그 세부 기준인 기업관련법규(44위)는 여전히 낮은 수준

※ <첨 부 : 기업애로사항 개선 사례>

## < 첨 부 > 기업애로사항 개선 사례

### ※ 경기도 안성시 다우리(주) 기업

#### □ 현황

- 안성시 죽산면에 소재한 다우리(주)는 리베트 나사등 베어링 부품을 제조·수출하는 기업임
- 종업원 20명의 중소기업이지만 연매출액 20억을 달성하는 등 유망한 부품기업으로서 특히, 최근에 일본지진의 여파로 인하여 수출 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장증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

#### □ 애로사항

- 동 기업은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있어 현행법상 공장등은 건축증설 및 부지확장이 불가능하여 증대하는 수출물량 요구에 대응이 곤란

#### □ 기대효과

- 이에 대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(7.15 시행)으로 공장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,
  -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용확대 및 매출 신장(10억원이상)을 기대할 수 있게 됨